

마류밍: 행위의 축적 马六明: 行为的沉积

MA Liuming: Sediment of Performance



No. 1
2016
캔버스에 유채
140x100cm

전시개요

전 시 명 : 마류밍 개인전 《행위의 축적》
전시기간 : 2018년 8월 17일(금) - 9월 16일(일)
전시장소 : 학고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회화 19점

담 당

우정우 wcw@hakgojae.com
박미란 miran@hakgojae.com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80817-20180916_마류밍, 행위의 축적

1. 전시개요

학고재는 2018년 8월 17일(금)부터 9월 16일(일)까지 마류밍(b. 1969, 중국) 개인전 《행위의 축적》을 연다. 지난 2014년 중국 상하이, 서울 학고재에서 연이어 선보인 개인전 이후 4년 만이다. 마류밍은 <편·마류밍>(1993~2004) 퍼포먼스 연작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다. 그의 또 다른 자아 '편·마류밍'은 남성으로서 신체의 해방을 주장하는 여장 나체 퍼포먼스를 펼치며 동시대 미술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본래 전공인 회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마류밍은 재능과 열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시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유의 누화법¹으로 그린 애상적 화면과 새로운 기법의 근작들을 함께 소개한다. 과거 퍼포먼스 장면, 불, 나무, 풍경 등 작가의 삶과 철학, 미술사적 서사를 품은 이미지들이 회화의 소재가 된다. 마류밍의 다양한 인생 역정들을 보여주는 이미지다. 전시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작업한

¹ 漏画法. 마류밍 특유의 회화 기법으로, 성긴 캔버스의 후면에서 물감을 밀어내 표면에 스며들게끔 함으로써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낸다.

총 19 점의 회화를 만나볼 수 있다. 마류밍의 회화가 나아가는 새로운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는 학고재 본관에서 열린다.

2. 전시주제

시대를 이겨낸 저항의 몸짓 - 마류밍의 작가 정신을 되새기는 전시

마류밍이 첫 번째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은 1989 년, 중국 우한의 후베이미술학원에서 열린 《상황의 연작들》이라는 제목의 단체전에서였다. 당시 유화과 학부 재학생이었던 마류밍은 일생 최초의 퍼포먼스 〈States No. 1〉(1989)을 발표한다. 행위를 통해 억압적인 사회에 대한 저항 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중국의 1989 년도는 아픈 역사를 간직한 해다. 톈안먼(天安門·천안문) 사태로 인해 민주화의 꿈이 좌절되었고, 냉전의 종식을 앞둔 사회는 혼란스러웠다. 시대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은 작가들의 작품세계에 자연스레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에는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이 《1989 년 이후의 예술과 중국》(2017)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선보이기도 했다. 1989 년도라는 시대적 상황을 기점으로 중국 현대미술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전시다. 마류밍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이웨이웨이, 썩판즈, 장환, 덩이 등 중국 동시대 미술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큰 화제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암울하고 부조리한 시대에는 언제나 자성을 촉구하는 저항의 목소리가 있다. 특히 예술가에게 있어 관성에 대한 저항 의식과 진취적 사고는 시대를 이끄는 사명이다. 마류밍이 베이징 이스트 빌리지(北京东村·북경동촌)에서 여장을 한 나체의 모습으로 '편·마류밍' 퍼포먼스를 펼치던 당시, 중국 사회는 보수적이고 엄격했을 뿐만 아니라 행위예술이라는 장르 자체에 문외한이었다. 신체의 해방과 표현의 자유를 외친 마류밍의 작품 활동이 체포와 구금이라는 극단적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술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마류밍은 시대를 이겨냈다. 그리고 세계 무대로 나아갔다. 1993 년부터 10 여년 간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을 순회하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편·마류밍 만리장성을 걷다〉(1998), 〈리옹에서 편·마류밍〉(2001), 〈몬트리올에서 편·마류밍〉(2001) 등의 연작으로 동시대 미술사에 자신의 이름을 확고히 새겼다. 학고재는 한 시대에 큰 흔적을 남긴 작가 마류밍의 작품세계를 되새기고 최근의 행보를 살펴보고자 이 전시를 기획했다. 지나간 걱정 세월에 대한 추억과 애상이 녹아든 캔버스 화면 아래, 변함없이 강인한 마류밍의 작가 정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삶, 역사, 행위의 퇴적물이 쌓여 이룬 화면 - 다시, 회화로

최근 마류밍은 지난 퍼포먼스의 이미지들을 화폭에 불러오는 일을 통해 과거의 신념을 굳건히 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젊고 아름다운 마류밍의 분신 '편·마류밍'은 영원한 안녕을 고했지만, 그가 우리 시대에 남긴 정신과 흔적들이 다시 캔버스 위에 퇴적물처럼 쌓이고 있다. 마류밍의 시각적 표현들은 스스로의 삶의 경험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줄곧 삶 속에서 체득한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철학과 예술을 표현해 왔기 때문이다. 마류밍은 과거의 파편을 화면에 축적하고 최근의 기억을 재현하기 위하여 그가 창안한 독특한 기법의 회화 예술을 선보이고 있다. 본래 회화를 전공한 작가답게 유려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단편화된 서사와 기억의 파편들을 누화법, 균열 화법으로 화폭에 옮긴다.

마류밍의 회화는 작가 자신의 인생과 철학, 진실한 표현이 축적된 화면이다. 개인의 시각적 경험과 미술사적 지식, 과거의 퍼포먼스로부터 불러낸 표상을 한 데 뒤섞어 화폭 위에 풀어놓는 행위다. 마류밍이 그리는 것은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생각들의 중첩이다. 그는 구상과 추상, 표현의 재현을 넘나들며 지나간 시간과 신체의 자취를 재차 탐구한다. 마치 회화를 통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반추하는 듯하다.

3. 작품소개

대표작품



No. 1

2016

캔버스에 유채

140x100cm

마류밍의 작업은 늘 스스로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해 고통과 저항의 서사로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이끌어냄으로써 특유의 애상적 정취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근작은 나이프를 이용해 화면에 수많은 흔적과 균열을 만들어 낸 회화다. 갈라진 틈새로 표피 아래 숨은 색이 새어 나오며 화면에 깊이를 더한다. 화면의 갈라지고 찢긴 흔적들이 작가가 경험한 고통을 내포하는 듯하다.

〈No. 1〉(2016)의 화면 전면에 불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균열로 가득한 화면 안에서 꺼질 듯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의 형상이 강인한 인상을 준다. 상단 중앙부에는 발 벗은 작가

자신의 다리가 희미하게 드러난다. 타는 불을 살펴보듯 가까이서 있는 모습이다. 화폭에 담은 불은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건져 올린 이미지다. 고통스럽게 갈라진 화면을 가로지르며 꾸준히 솟아오르는 불길이 작가 마류밍의 작품세계와 열정을 상징한다.



No. 2

2015~2016
캔버스에 유채
200x150cm

마류밍의 회화에는 과거 퍼포먼스에서 건져낸 형상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마류밍이 20 세 되던 해 선보인 일생 최초의 퍼포먼스 <States No. 1>(1989)의 이미지들을 발견할 수 있어 흥미롭다. <States No. 1>은 마류밍 작품세계의 초석이 된 의미 있는 작품으로,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된 퍼포먼스다. 각각의 행위를 통해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개개인의 고통과 저항의 몸짓을 표현하고자 했다.

퍼포먼스의 첫 번째 파트는 마류밍이 단상 위에서 비닐로 감싼 나체의 몸을 웅크린 채 괴로움을 토로하는 행위다. 이 장면이 작품 <No. 2>(2015~2016)의 중앙부에 무채색 덩어리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작품 하단부에 보이는 희미한 불꽃의 모습이 앞서 소개한 작품 <No. 1>(2016)을 연상시킨다. 작품세계의 시작을 회고하듯 이제 막 피어 오르기 시작한 불씨를 묘사했다.



No. 1

2015~2017
캔버스에 유채
200x150cm

두 번째 파트의 이미지는 작품 <No. 1>(2015~2017)에서 찾아볼 수 있다. 퍼포먼스 당시 길게 찢은 신문지를 온 몸에 두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서 있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화폭에 옮겼다. 단순한 색과 붓질로 표현했음에도, 표면의 균열과 갈라짐이 형태와 잘 어우러져 완성도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세 번째 파트는 나체의 몸이 건물의 천장 구조물(天花板)에 매달려 몸부림치는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 아직 회화로 재현하지 않았다.



No. 3

2014~2015

혼합매체

150x100cm



No. 8

2014~2015

혼합매체

150x100cm

본관 안쪽 방에 들어서면 누화법을 이용해 그린 회화 8 점을 만나볼 수 있다. 본래 9 점을 함께 선보이고자 한 연작이었으나 이 중 1 점이 신체의 노출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당한 안타까운 해프닝이 있었다. 여러 세대가 지났음에도 예술 표현에 대해 다소 제한적인 중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전시 도록에는 해당 연작 9 점을 함께 수록했다.

일련의 작품은 <편·마류밍> 연작 중 작가가 수면제를 복용한 반수면 상태로 의자에 앉아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한 퍼포먼스를 소재로 했다. '편·마류밍'의 모습은 희미하게 표현되거나 사라지고 관객의 형상만이 남았다. 누화법으로 그린 유화는 성긴 캔버스의 후면을 통해 밀어 넣은 물감이 표면으로 빠져나오면서 불규칙한 윤곽과 색면을 이루는 점이 특징이다. 흐릿한 인물의 형상이 마류밍 작품 특유의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퍼포먼스 당시 반수면 상태로 관객을 바라보던 마류밍의 시선을 어렵듯이 짐작해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감의 기름 성분이 이미지 가장자리로 서서히 번져나가면서 모호한 윤곽과 같은 흔적을 만든다. 세월의 흐름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며 애상의 정취를 이끌어내는 작품이다.



No. 1

2015~2016

캔버스에 유채

200x250cm

<No. 1>(2015~2016)에 '편·마류밍'의 뒷모습이 등장한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스튜디오 303 에서 발표한 퍼포먼스 <몬트리올에서 편·마류밍>(2001) 중 한 장면을 화폭 위로 불러냈다. <몬트리올에서 편·마류밍>은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1921~1986)의 퍼포먼스 <죽은 토끼에게 어떻게 그림을 설명할 것인가>(1965)에서 영감을 얻어 구성한 작품이다. 반수면 상태에 빠진 '편·마류밍'의 주위에 살아 있는 10 마리의 토끼를 풀어 놓아 관객과 상호 작용하도록 했다.

<No. 1>(2015~2016)은 '편·마류밍'의 형상이 뚜렷이 드러나 퍼포먼스 당시의 현장을 상기시키는 작품이다. 이미지의

외곽선을 의도적으로 흐트러뜨린 점이 눈에 띈다. 형태의 윤곽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은 마류밍 회화에서 보이는 하나의 특징이다. 누화법 회화에서 유화 물감의 기름 성분을 이용하여 윤곽이 자연스럽게 구성되도록 유도했다면, 〈No. 1〉(2015~2016)에서는 작가가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장면이 추상으로 부서지는 과정의 첫 단계를 포착한 듯하다.

4. 작가소개

1969 년 중국 황스에서 태어나 1981 년도부터 가정교사 카이 에르헤에게 유화를 배웠다. 1991 년도에 후베이미술학원 유화과를 졸업한 후, 1993 년 베이징 이스트 빌리지에 합류하여 〈편·마류밍〉 연작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영국의 듀오 아티스트 길버트 & 조지와의 만남을 계기로 〈길버트 & 조지와의 대화〉(1993)를 완성하기도 했다. 1998 년도에는 나체로 만리장성을 걷는 퍼포먼스 〈편·마류밍 만리장성을 걷다〉를 통해 국제 미술계에 널리 알려졌다.

20 대에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세계 무대를 누비며 작품을 선보였다. 런던 차이니스 컨템포러리,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베이징 화이트박스 미술관, 서울 및 상하이 학고재 등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30 세 되던 해에 제 48 회 베니스비엔날레(1999)에 초청받았으며 이듬해에는 제 3 회 광주비엔날레(2000)에 참가했다. 뉴욕 P.S.1 현대 미술센터,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등 국제적으로 명망 높은 기관의 단체전에 다수 참여했다. 지난해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열린 대규모 단체전 《1989 년 이후의 예술과 중국》(2017)에서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런던 테이트컬렉션,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 일본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5. 전시서문

*서문에서 4 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삶, 그 자체로서의 의미

- 마류밍의 회화에 대하여

지 샤오핑 (후베이미술관 관장)

마류밍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그의 작품 <편·마류밍>과 연결된다. <편·마류밍>은 동시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상징적 작품 중 하나다. 이 시대에 뚜렷한 정신적 자취를 새기며 30 여 년 동안 일련의 시각적 서사를 이어오고 있다. 마류밍의 시각적 표현의 근간이 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1993 년에 시작된 <편·마류밍>은 국제적인 전시에 꾸준히 소개되어 왔으며 동시대 미술계의 전설이 되었다. 마류밍은 관객이 작품을 통해 시각적 흥미를 느끼도록 끊임없이 유도하는 한 편 그들을 작가 자신의 내면세계 깊숙한 곳으로 안내한다. <편·마류밍>은 오늘날의 사회와 예술가의 삶에 대한 마류밍의 열정적인 사고와 진실한 표현이 축적된 작품이다.

마류밍의 시각적 표현들은 의미상의 혼용과 다의성, 언어학적 풍성함과 다양성으로 가득하다. 퍼포먼스, 사진, 설치, 조각, 평면 작업 등 다양한 매체를 선택하여 표현하는 점에서 부지런히 사고하고, 표현에 뛰어나며, 다양한 방식의 표현을 시도하는 작가의 면모가 드러난다. 마류밍이 자신의 예술에서 추구하는 엄격한 요건과 정밀한 계획들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마류밍은 끊임없이 새롭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구사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에 무한한 추억과 깊은 사유, 그리고 논란을 남긴 작품 <편·마류밍>만은 영원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을 것이다. <편·마류밍>의 변치 않는 매력이 마류밍으로 하여금 동시대 미술사에 고찰의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게 했다. 마류밍은 삶의 의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마류밍의 시각적 표현들은 스스로의 삶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마류밍은 자신의 삶 속에서 체득한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인생 철학과 예술적 견해를 표현한다.

마류밍의 시각적 서사 논리와 표현들을 살펴보면, 관객이 작품에 내포된 참뜻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 네 가지 주제를 어렵지 않게 꼽아볼 수 있다. 첫째, '후베이를 떠나다,' 둘째, '정치적 기호와 전략으로서의 몸,' 셋째, '다양한 시각적 표현 방향,' 넷째, '다시, 정통 회화로다.'

1. 후베이를 떠나다

후베이를 떠난 것은 마류밍의 예술가로서의 경력과 전업 작가를 향해 가는 행보에 매우 중대하고 결단력 있는 발돋움이었다.

마류밍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1981 년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1991 년에 후베이미술학원을 졸업한 마류밍은 1993 년부터 본격적으로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처음부터 전업 작가의 길을 택했다. 이는 매우 훌륭한 시작점이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전업 작가에게는 정체성의 자유와 정신적 독립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작가들을 더욱 순수하게 하고, 의무감을 바탕으로 한 용기와 강인함으로 투철한 정신을 가지게끔 한다. 마류밍이 강한 '보헤미안 스타일'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대학 졸업 후, 작가에게 놓여진 역사적 배경은 그가 후베이를 떠나 예술 표현에 있어 정신적인 자유와 망명을 추구할 수 있게끔 용기를 불어넣었다. 마류밍의 독립적인 생존 방식과 생활 환경 또한 그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표현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었다. 당시의 우한은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무력했다. 80 년대 중반 뉴웨이브 시대의 활기차고 충동적인 분위기와는 매우 거리가 멀었다. 미술계의 엘리트들은 하나둘씩 우한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 탕샤오헤(唐小禾)가 마류밍을 격려하며, "베이징은 소용돌이다.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가라"고 말했다. 1990 년 초반부터 급작스레 널리 쓰이기 시작한 '베이징 표류자'라는 말은 마류밍처럼 베이징이라는 낯선 도시에 정착해 살던 이방인들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다. 마류밍이 '베이징 표류자'들의 주요 일원이 된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마류밍은 외지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중심지인 베이징에서 자신만의 예술을 실현하려 했다. 불안정한 생계와 도시 외곽에서의 생활, 체제 순응을 거부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태도로부터 비롯된 표류하는 듯한 삶과 그 속에서의 경험, 사회로부터의 정신적 망명과 이탈은 작가의 표현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외지인의 심경과 삶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일이었다. "1992 년부터 1994 년까지 베이징에 있는 이른바 '이스트 빌리지'는 외지에서 온 작가들의 터전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살고 작업도 같이 하면서 중국 실험미술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탐색했다. 이스트 빌리지 출신의 작가들을 위안밍위안(圆明园)이나 송장(宋庄) 출신 작가들과 구별 짓는 주요한 차이점은 이들이 동료 작가들 및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데에 있다. 당시 이스트 빌리지는 지저분한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이 가득한 곳이었다. 작가들은 이스트 빌리지로 이주하는 것을 자기배제의 행위로 여겼다. 빈곤한 처지에 있던 그들은 '지옥 같은' 이스트 빌리지와 '낙원 같은' 베이징 시내의 대비에 매력을 느꼈다. 그들은 이러한 대비에 감명받았다. 이 시기의 작가들의 작업은 대부분 강하게 억제된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우홍, 작품과 전시, 중국 동시대 미술에 대한 우홍의 견해, 링난 미술 출판사, 초판, 2005 년 12 월, pp.

84-85) '베이징 이스트 빌리지'의 주요 일원으로서 마류밍이 품은 삶의 딜레마와 작업적 상황은 우홍의 글에서도 명백히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류밍이 얻은 명성으로부터 알 수 있듯, '베이징 이스트 빌리지'와 작가 '마류밍'은 동시대 미술사에 중대한 한 획을 남겼다. 마류밍은 임시 수용소에 머무르고 고향인 황스(黃石)로 추방당하는 등의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망설임 없이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나는 진정으로 미술이 내 몸을 흐르는 피와 같은 것이라고 느끼며 자랐다. 다른 것은 할 수 없었다. 늘 그렇게 생각했다." (마류밍, 후난 미술 출판사, 제 1쇄, 초판, 2012년 3월, p. 3)

2. 정치적 기호와 전략으로서의 몸

관객은 <편·마류밍>을 통해 마류밍이 시각적, 행위적 표현 뒤에 숨겨놓은 정체성, 성별, 그리고 인간의 절대적 미에 대한 막연하고 예측할 수 없는 모순과 갈등을 확실히 엿볼 수 있다. 이는 작가가 사회에서 소외된 외지인으로서 마음에 새긴 진실된 경험이다. 마류밍과 같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젊음과 육체뿐이었으며, 후자는 자연스레 빈곤과 연결되는 면이 있다. 마류밍이 자신의 신체를 표현의 소재로 택하여 사용한 것은 하나의 전략이었으며 정치적 의도였다. 표류하는 삶에서 얻은 경험은 중국 동시대 미술의 특수한 집단을 대변하는 특징이며, 주류 문화와 체제에 대한 거부와 저항 정신을 반영한다. <편·마류밍>을 하나의 기호로서 바라보면 그 중요성은 단지 예술에만 그치지 않는다. <편·마류밍>에는 자유로운 정신과 인간 본성 및 생각의 해방에 대한 메시지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체제와 권력에 대한 도피의 의미 또한 내포한다. 마류밍은 반복적으로 "<편·마류밍>은 내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예술을 위해 만들었다. 이것은 실존하지 않는 환상을 보여주는 소설과 같이 창작된 작품이다." (마류밍, 후난 미술 출판사, 제 1쇄, 초판, 2012년 3월, p. 7)라고 강조해왔지만 그가 만들어낸 이 환상적 이미지는 동시대 미술의 국제적인 표상이 되었다. 마류밍은 자신이 받아온 교육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들을 철저하게 잊고 자기 신체의 형질을 하나의 예술 언어로써 <편·마류밍>의 퍼포먼스에 적용시킨다. 마류밍은 작품에 매우 능숙하게 국제적 수준의 퀄리티를 부여하며, 스스로의 생존 경험과 시각적, 정신적 미학을 투영한다. 외지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에서부터 부랑자로서의 생존 경험에 이르기까지, 그는 비판적 시선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진정 자신만의 예술의 길을 걸어왔다. 마류밍의 작품들은 마치 작가 자신처럼 감정적이고, 정의롭고, 자유분방하며, 열정과 상상력이 가득하다. 부랑자로서의 생활 경험, 동시대의 시각적 경험, 그리고 사회의 벼랑 끝에 몰린 마류밍의 처지는 그가 삶의 본질과 자신의 신체를 돌아보도록 만들었다. 삶의 본능을 표출함으로써 마류밍은 사회 체제와 법의 규율, 구속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그는 조용하고 은근하게 저항해왔다. 스스로의

우울감과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생명의 본능적 충동과 갈망은 마류밍이 끊임없이 관객에게 시각적 경이로움과 기대감을 선사하게끔 돕는 요소다.

이는 <편·마류밍>이 우리에게 매우 인상적인 이유 중 하나다. 마류밍이 만들어 낸 이 존재하지 않는 환상은 수많은 생각과 애상으로 가득한 이미지를 우리 시대에 남겨주었다.

3. 다양한 시각적 표현의 길

<편·마류밍>은 마류밍에게 명성과 아우라를 안겨준 한 편 그의 시각적 표현을 제한하기도 한다. 마류밍이 서양화를 전공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퍼포먼스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결코 회화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마류밍의 조각 및 설치 작업은 그가 열정과 재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 표현 방식을 넘나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삶의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표현에 있어, 그는 다양한 시대적, 사회적 이슈에 따른 시각적 전략을 끊임없이 조율한다. 그에게 있어 이스트 빌리지에서의 일 년은 감정이 급격하게 들끓었던 해였다. 마류밍이 회화 작업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인 <아이> 연작(어른의 머리와 아이의 몸이 붙어있는 작품)은 <편·마류밍>과 호응한다. 마류밍이 느꼈던 첫아이에 대한 무지함과 행복감 및 생명의 초기 상태와 본성은 <아이> 연작에 시각적으로 깊은 생명의 자취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나타낸다. 변형된 아이의 초상은 한줄기 빛과 같았다. 아이의 감은 눈을 닦기도 했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여인의 흉터였다. 개복 부위는 낯선 행복감과 삶의 가장 중대한 경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의 창이었다. 이러한 <아이> 연작에는 제목조차 필요하지 않았다. 단순히 <No. 37> (140x100.5cm, 캔버스에 유채, 1993)이나 <No. 32> (250x209cm, 캔버스에 유채, 2005-2006)로 이름 붙였다. 간결하고 단순하며, 행복함으로 가득한 연작이다. 마류밍은 차마 놓지 못한 생명의 자취를 되돌아보고 신체를 탐구하는 행위를 형상화한 '누화법(漏画法)'이라는 새로운 화법을 시도했다. 누화법은 생명의 영원함을 보여주는 한 편 삶의 흐름과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낸다. <아이> 연작 중 몇몇 작품은 아이의 몸에 마류밍의 머리가 붙은 형태를 하고 있다. 생명의 모순적인 부조화와 뒤섞인 신체가 <편·마류밍>의 아련한 애상의 기억을 담담히 보여준다. 마류밍이 언급했듯 <편·마류밍>은 그의 예술적 표현의 영혼과 같다. 그러나 마류밍은 동시에 이것을 버리고 떨쳐내려 노력했다. 작가는 수많은 국제적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를 스스로 촬영하거나 만리장성을 걷는 등 다양한 시각적 표현의 길을 걸어왔다. <편·마류밍>으로부터 다시 <편·마류밍>에 이르기까지 마류밍은 스스로에게 친숙한 시각적 묘사 방식을 초월하고 타개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와 표현 언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근본적인 주제는 항상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편·마류밍>의 단편화된 기억들은 마류밍의 평면작업에 지속적으로 이식된다.

신체의 활용부터 성별의 혼합, 그리고 다시 영상, 조각, 평면 작업에 이르기까지, 마류밍은 2 차원과 3 차원, 평면과 입체, 신체적 행위와 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표현에의 시도를 거듭해왔다. 끊임 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마류밍의 진취적인 모습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틀에 박히지 않은 태도로 늘 창의적인 시각과 자기 초월을 추구하는 성숙한 작가로서의 면모다. 짙은 보헤미안 스타일로 무장한 마류밍의 영혼과 신체의 일탈에서 그의 독창성과 자유에 대한 추구, 길들여지지 않은 열정과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지닌 정신적 매력이 엿보인다. 우리는 마류밍의 다양한 시각 표현을 통해 작가 내면의 형언할 수 없는 생명의 충동과 굳건하고 끊임없는 예술에 대한 추구를 읽어낼 수 있다.

4. 다시, 정통 회화로

거듭되는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대중문화의 유행, 급속한 세계화와 이미지 시대의 강림, 특히 위챗(WeChat), 웨이보(Weibo), 인공지능 등이 가져온 생활 양식의 변화 및 사회, 정치, 문화, 경제 구조의 거대한 변화는 마류밍의 생활 양식과 표현 방식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자본의 신전(神殿)'의 비상, 상업화의 침범 및 베이징 이스트 빌리지의 붕괴는 한때 서로 끌어안고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였던 작가들이 흩어져 각자의 길을 걷도록 했다. 작가 인생의 위기, 연령의 상승, 신체의 변화와 신체기관의 쇠퇴를 겪으며 신체적 젊음은 과거의 좋은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다. 생명의 원시적, 본질적인 모습에 대한 여운도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사춘기의 충동은 되돌아오기 어렵고 퍼포먼스를 위한 열정과 순발력도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삶은 흘러가고 시간은 인생을 소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예술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정통 회화로의 회귀는 작가가 선택한 일종의 선택이었다. 마류밍의 최근 유화 작품들은 관객에게 다시 한번 정통 회화의 매력을 보여준다.

이번 연작은 나이프로 인한 자국과 균열로 표현한 회화다. 기존 누화법의 연장선이다. 이미지는 전 층의 색이 새어 나오면서 나타나는데, 고대 벽화나 금광석이 뒤섞여 얼룩덜룩하게 나타나는 효과를 선사한다. 이는 단순하지만 직설적이고 힘차다. 최소한의 색을 사용하여 단순하면서도 생기가 넘친다. 이미지 속에는 마류밍의 다양한 인생 시기들이 감춰져 있다. 회화의 소재인 과거 퍼포먼스 장면과 아이, 나무, 개, 불 등에는 마류밍의 예술적 경험과 미술사적 서사, 이성과 질서가 내포되어 있다. 화면의 파손, 찢김 및 갈라짐의 흔적들은 일종의 고통 또한 품고 있다. 개인의 시각적 경험과 미술사적 기억의 뒤섞임, 퍼포먼스의 고전적 표상의 참조와 이용은 작가로 하여금 예술을 성찰하고 새롭게 사고할 수 있게 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재경험과도 같았다. 마류밍은 분열된 기억을 통해 최근의 기억을 재현하고, 기존 삶의 방식을 복원해낸다. 부유하는 듯한, 섬세하고, 걱정스럽고, 고독하고, 기이한 이 모든 순간들은 다 불분명하고 모호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

한 것은, 마류밍이 의도적으로 역사적 기억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시대를 다시 체험하고 재발견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얻어낸 것이 바로 평면 화면의 재현이다. 이러한 재현은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개인적 및 집단적 경험들과 얽여있는 다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심오한 삶의 경험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의 사회적, 문화적 현실을 드러내며, 격변하는 시대와 사회에 대응한다. 내면의 직관을 따르고자 하는 작가의 태도는 스스로를 격렬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동향에 늘 노출될 수 있게끔 한다.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에 집중하면서도 마류밍은 항상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을 견지해왔다. 이는 그가 시대의 변화에 민감해지도록 만들었다. 자본과 문화의 세계적 통합을 바탕으로 한 새 시대와 요소들의 배경 아래, 작가는 단편화된 서사, 부서진 시각적 묘사 그리고 역사적 기억의 파편들로 구상과 추상, 그리고 표현의 재현을 넘나들며,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즐기지만 외롭고 공허하고 정신적으로 지루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가의 자기서사를 주제로 하여 사회의 낭만적, 환상적, 망상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의 진실한 정서는 감성적인 것들, 즉 서정적인 조각들과 단편화된 기억들로도 대체된다. 그가 표현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삶의 경험들과 예술적 경험들의 중첩이다. 마류밍의 표현 의도는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환상, 허구, 은폐 등과 같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의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것은 허황되고 불확실하다..... 그의 작업은 스스로가 겪은 생존 경험에서 시작하여 늘 자신의 예술사적 서사의 단서와 삶의 고통을 향해 나아간다. 새로운 동양적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통과 전통회화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창작의 방향은 마류밍이 가진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확실한 것은 믹스매치와 다원화된 문화의 시대에서, 마류밍이 자신만의 활기와 충동, 열정과 이성, 그리고 삶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동시대 미술을 다양한 표현의 길로 인도한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을 계속해서 개선한다. 동시에, 시대를 초월한 미적 아름다움을 동시대 미술사에 남긴다.

2018년 6월 13일, 오후 11시 15분, 동후 산구안디안(东湖三官殿)에서

6. 작가약력

마류밍

- 1969 중국 황스 출생
- 1981 카이 에르헤에게 그림을 배움
- 1991 중국 우한 후베이미술학원 유화과 학사 졸업
- 현재 베이징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 퍼포먼스 및 전시

2018 행위의 축적, 학고재, 서울

- 2015 마류밍의 드로잉 (중국국제갤러리박람회 2015), 중국 국제컨벤션센터, 베이징
- 2014 학고재, 서울
십분의 일초, 학고재 상하이, 상하이
- 2013 십분의 일초: 편·마류밍, 화이트박스 미술관, 베이징
- 2011 젠더 수행성과 생물정치학 (디소시에이션: 2011 아트 창사), 후난성박물관, 창사, 중국
- 2009 마류밍 신작, 돌로레스 데 시에라, 마드리드
- 2007 마류밍에 대한 간략한 소개, 돌로레스 데 시에라, 마드리드
- 2006 프리모 마렐라 갤러리, 밀라노, 이탈리아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 2005 알베르 베나무 갤러리, 파리
베이징 아트 나우 갤러리, 베이징
마류밍 퍼포먼스 선택된 이미지들, 아우라 갤러리, 상하이
- 2004 편·마류밍, 타이캉 탐 스페이스, 베이징
- 2003 애니 데이,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런던에서 편·마류밍, 차이니즈 컨템포러리, 런던
- 2002 사진: 마류밍 개인전, 수빈 아트 갤러리, 싱가포르
- 2001 텐스타 쿤스트홀, 스톡홀름
갤러리 Q, 도쿄
몬트리올에서 편·마류밍 (페스티벌 아트 액션 액추얼), 스튜디오 303, 몬트리올, 캐나다
리옹에서 편·마류밍 (폴리소너리즈 페스티벌), 레 슈시스팅스, 리옹, 프랑스
오덴세에서 편·마류밍 (제3회 인터내셔널 퍼포먼스 페스티벌), 오덴세, 덴마크
이스탄불에서 편·마류밍 (제 7 회 인터내셔널 이스탄불 비엔날레), 이스탄불
퍼펙트 데이 II (제7회 인터내셔널 이스탄불 비엔날레), 처녀의 탐, 이스탄불
리스본에서 편·마류밍, 필로메나 소어레스 갤러리, 리스본
무제 (스팬 2 인터내셔널 퍼포먼스 아트), CGP (딜스턴 그로브), 런던
- 2000 자카르타에서 편·마류밍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퍼포먼스 아트 페스티벌 2000), 우탄카유 극장, 자카르타
광주에서 편·마류밍 (제3회 광주비엔날레), 광주
뒤셀도르프에서 편·마류밍 (퍼포먼스 아트 인 NRW 2000), 쿤스트raum 뒤셀도르프, 뒤셀도르프, 독일

- 윈스터에서 편·마류밍 (퍼포먼스 아트 인 NRW 2000), 쿤스트할레 윈스터, 윈스터, 독일
 5분의 퍼포먼스 (퍼포먼스 아트 인 NRW 2000), 마시넨하우스/예흐 칼, 에센, 독일
 퍼펙트 데이 I (제3회 방콕 국제 행위예술제), 반 차오 프라야, 방콕
 1999 잭 킬튼 갤러리, 뉴욕
 런던에서 편·마류밍, 차이니스 컨템포러리, 런던
 제네바에서 편·마류밍 (퍼포먼스 인덱스 페스티벌), 제네바, 스위스
 바젤에서 편·마류밍 (퍼포먼스 인덱스 페스티벌), 바젤, 스위스
 SFMoMA에서 편·마류밍 (인사이드 아웃: 뉴 차이니스 아트),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옌스에서 편·마류밍 (퍼포먼스 페스티벌), 옌스, 오스트리아
 나고야에서 편·마류밍 (NIPAF 여름 세미나 '99), 나고야, 일본
 도쿄에서 편·마류밍 II (NIPAF 여름 세미나 '99), 도쿄
 리즈나 하이츠 '시나노 산소우'에서 편·마류밍 (NIPAF 여름 세미나 '99), 시나노 산소우, 나가노, 일본
 나가노에서 편·마류밍 II (NIPAF 여름 세미나 '99), 나가노, 일본
 뮌헨에서 편·마류밍 (씨어터 페스티벌 슈필아트 '99), 뮌헨, 독일
 1998 혼돈 & 탄생/마류밍 '98, 갤러리 Q & QS, 도쿄
 편·마류밍 만리장성을 걷다, 쓰마타이, 베이징
 P.S.1에서 편·마류밍 (인사이드 아웃: 뉴 차이니스 아트), P.S.1 현대 미술센터, 뉴욕
 1997 세타가야 미술관에서 편·마류밍 (디젠더리즘), 세타가야 미술관, 도쿄
 편·마류밍이 스스로를 찍은 36장의 사진 II (디젠더리즘), 세타가야 미술관, 도쿄
 브레다에서 편·마류밍, 브레다, 네덜란드
 알마에서 편·마류밍 (퍼포먼스 아시아티크), 퀘벡, 캐나다
 르 리우에서 편·마류밍 (퍼포먼스 아시아티크), 르 리우, 퀘벡, 캐나다
 트로아-리비에르에서 편·마류밍 (퍼포먼스 아시아티크), 퀘벡, 캐나다
 토론토에서 편·마류밍 (퍼포먼스 아시아티크), 토론토, 캐나다
 1996 차이니스 컨템포러리, 런던
 도쿄에서 편·마류밍 I (NIPAF '96), 국제 포럼, 도쿄
 나가노에서 편·마류밍 I (NIPAF '96), 노동자 복지문화센터, 나가노, 일본
 편·마류밍 III, 베이징
 피쉬 차일드, 베이징
 편·마류밍이 스스로를 찍은 36장의 사진 I, 베이징
 1995 편·마류밍과 물고기, 베이징
 오리지널 사운드 (작가 10인의 솔로 퍼포먼스), 베이징
 1994 편·마류밍 II, 베이징 이스트 빌리지, 베이징
 편·마류밍의 점심 I, 베이징 이스트 빌리지, 베이징
 편·마류밍의 점심 II, 베이징 이스트 빌리지, 베이징
 1993 길버트 & 조지와의 대화, 베이징 이스트 빌리지, 베이징
 편·마류밍 I, 베이징 이스트 빌리지, 베이징
 편·마류밍이 말하길, 베이징 이스트 빌리지, 베이징

단체 퍼포먼스 및 전시

2017 샤오 이 샤오 현대미술전, 산수이미술관, 베이징

- 그 시절, 후베이미술관, 우한, 중국
 플라워 포 시즌스, 징 아트, 청두, 중국
 1989 년 이후의 예술과 중국: 세계의 무대, 구겐하임미술관, 뉴욕
 중국 당대 사진 40 년 (1976-2017), 베이징 삼영당 촬영 예술중심, 베이징
 중국 현대미술가 드로잉 연구전 (1 첩터) - 트라이엄프 갤러리 10 주년 특별전, 트라이엄프 갤러리, 베이징
 유혹적인 세이렌은 그대의 문장, 바르샤바 현대미술관, 바르샤바
 잠재적 기쁨, 가목량예술원, 광저우, 중국
 리포커싱 - 순수미술 문학 아트센터 신관 개관전, 순수미술 문학 아트센터, 우한, 중국
 무한한 현실, 다중적 현재 - 후베이 현대미술의 양상, 우한대학 완린미술관, 우한, 중국
 2016 샤오 이 샤오 현대미술전, 야밍예술관, 허페이, 중국
 유리: 작가 소장품전, 중앙예술대학(CAFA) 미술관, 베이징
 부산비엔날레: 언/어더 아방가르드: 중국-일본-한국, 부산
 위대한 일상,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시크릿 러브, 바름랜드미술관, 칼스타드, 스웨덴
 중국 행위예술 30 년 문헌전, 민생미술관, 베이징
 현대미술의 새로운 수준, 가간미술관, 지난, 중국
 세임? 낫 더 세임, 빅 하우스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우한, 중국
 2015 퓨전: 1930 년대 이후의 중국 현대미술, 우한대학 완린미술관, 우한, 중국
 되돌아보는 미술사: 중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길, 엘리온 아트 갤러리, 베이징
 실험구역: 예술에 관한 논의, 난징 국제전람센터, 난징, 중국
 영혼의 그랜드 투어: 현대미술전, 미오 아트 스페이스, 상하이
 시크릿 러브, 트로펜뮤지엄, 암스테르담
 2014 선구자의 선견과 지혜 - 중-불 수교 50 주년 회고전, 중국국가박물관, 베이징
 한아트가 엄선한 작품 100 선, 한아트 TZ 갤러리, 홍콩
 웨스트 세이 이스트 세이 - 중국 현대미술 연구전, 합미술관, 우한, 중국
 맥락 이탈: 1984, 37.8 아트랩, 베이징
 온 더 웨이, 종 갤러리, 베이징
 역병의 해 일지, 더큐브 프로젝트 스페이스, 타이베이; 아르코미술관, 서울
 차이나아르테브라질, Oca, 상파울루, 브라질
 2013 달리와 텅충 일기, 블루 루프 아트 갤러리, 청두, 중국
 나는 미학적 진전에 관련되지 않았다: 퍼포먼스에 대한 재고, 스타 갤러리, 베이징
 역사의 길: 베니스 비엔날레와 중국 현대미술의 20 년, 베네시안 아르세날, 베니스, 이탈리아;
 나파 89, 베니스, 이탈리아; 청두현대미술관, 청두, 중국
 시크릿 러브, 세계 문화 박물관, 고센버그, 스웨덴
 진화, 아방가르드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난징, 중국
 역병의 해 일지, 파라사이트, 홍콩
 고도에 대한 불안, 스노우 마운틴 뮤직 페스티벌, 리장, 중국
 다양한 혀, 유니크 톤, 베이징
 장관 복원: 중국 현대미술, MODEM 현대미술센터, 데브레첸, 헝가리
 2012 역사의 재고: 중국 현대미술 초대전, 선전미술관, 광저우, 중국; 스자좡미술관, 스자좡, 중국; G-Dot
 아트 스페이스, 베이징; 후베이미술관, 우한, 중국

- 시창 일기, 블루 루프 아트 갤러리, 청두, 중국
 시크릿 러브, 동아시아박물관, 스톡홀름
 관대함 - 중국 작가 21인의 이례적 작품 소장전, 화이트박스, 베이징
 개념 재개: 중국 현대 사진의 간단한 역사, 시상미술관, 베이징
- 2011 행위예술 중국 문헌 1985-2010, 송창미술관, 베이징
 중국 현대미술의 표현, 금일미술관, 베이징
 움직임의 균형 - 아시아 현대미술에 대한 태도, 소카 아트 센터, 베이징
 회고와 전망: 후베이 유화전, 후베이미술관, 우한, 중국
 우리의 고국, 베이징 비즈니스 투데이, 베이징
 관계, 이중성을 횡단하다, 아트사이드 갤러리, 베이징
 레드, 10 첸서리 레인 갤러리, 홍콩
- 2010 역사의 재구성, 중국 국립 컨벤션 센터, 베이징
 난징 비엔날레: 그리고 작가들 2010, 장수성미술관, 난징, 중국
- 2009 현대 중국 사진, 플로리다 사진 미술관, 탬파, 미국
 액션-카메라: 베이징 퍼포먼스 사진, 모리스 앤 헬렌 벨킨 미술관, 밴쿠버, 캐나다
 후베이와 후난 현대미술의 동향 1985-2009, 광둥미술관, 광저우, 중국
 회고와 탐구 - 순수미술 문학 아트센터 소장전, 후베이미술관, 우한, 중국
 재시각화된 중국 & 도시문화의 사상, 시안 취장 국제현대미술제, 시안, 중국
 중국: 오늘날의 부활, 팔라조 레알레, 밀라노, 이탈리아
- 2008 차이나 골드, 마을 미술관, 파리
 베이징-아테네: 중국 현대미술, 테크노폴리스, 아테네
 중국,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넘어,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아방가르드 차이나: 중국 현대미술 20년, 국립신미술관, 도쿄; 아이치현 미술관, 나고야, 일본;
 국립미술관, 오사카, 일본
 차이나 포워드, 춤백화점, 모스크바
 조우, 페이스갤러리, 베이징
 현대 중국 - 외곽에서 중앙까지, 아트사이드 갤러리, 베이징
 화중유화(画中有话), 다이얼로그 스페이스, 베이징
 인터랙티브 - 2008, 중국 현대 유화 초대전, 우한 미술관, 우한, 중국
- 2007 타이머01, 트리엔날레 보비사, 밀라노, 이탈리아
 정치적 미술, 트레차코프 국립박물관, 모스크바
 메이드인 차이나: 에스텔라 소장전,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 홀레벡, 덴마크; 이스라엘박물관,
 예루살렘
 용의 진화: 중국 현대사진, 차이나스퀘어 갤러리, 뉴욕
 아트 나우 상하이 - 베이징 아트 나우 갤러리 상하이관 개관전, 베이징 아트 나우 갤러리, 상하이
 중국의 퍼포먼스 사진, 잉 갤러리, 베이징
 워스 온 페이퍼, 게디스 컨템포러리, 뉴욕
 베이징에 자리잡기: 최근의 중국 퍼포먼스 비디오 ('후유증' 중에서), 아트스페이스, 시드니, 호주
 갈망의 풍경: 상양과 그의 제자들, 브릿지 갤러리, 베이징; 스지아왕 당대미술관, 베이징
 1997-2007 십년의 잠에서 깨어나다, 허징 유안 아트 갤러리, 베이징
 물리: 중국 현대작가 15인, 아트 시즌스 레이크 취리히 갤러리, 취리히, 스위스
 새로운 제국: 중국 현대미술의 원대한 시야, 소카 아트센터, 타이베이

- 2006 차이나 넥스트 도어, PAN, 나폴리, 이탈리아
 강과 호수: 중국 현대미술, 잭 킬튼갤러리, 뉴욕
 한 시점 - 우한, 순수미술 문학 아트센터, 우한, 중국
 위대한 퍼포먼스: 중국 현대사진, 맥스 프로테치, 뉴욕
 롱 마치 캐피탈, 롱마치스페이스, 베이징
 2006 헤이리 아시아 프로젝트 1 중국 현대미술축제, 파주
 현대 사실주의의 재발견, 소카 아트센터, 베이징
 과정과 표현, 스타 85 갤러리, 타이베이
 스스로 - 변화하는 풍경: 1990년 이후의 중국 아방가르드 사진, 아시아 아트 센터, 베이징
 숙명을 넘어서, 아트시즌스갤러리, 베이징
 커먼 링크, 바네사 아트링크, 베이징
- 2005 중국, 현대 회화, 카사 사라세니, 볼로냐, 이탈리아; 산 조르지오, 볼로냐, 이탈리아
 꿈 생산자 (II/VI): 상상의 중국 현대미술관, 청신동 현대미술공간, 베이징
 프라하 비엔날레 2: 중국 - 중국 회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 칼린 홀, 프라하
 마작 - 올리 지그 중국 예술 소장전, 베른미술관, 베른
 제스처: 시각자료실 진행 중, 마케도니아 현대 미술관, 테살로니키, 그리스; 쿼터-첸트로
 프로듀치오네 아르떼, 플로렌스, 이탈리아
 이상한 천국, 중국 현대사진전, 헬싱키 미술관, 헬싱키
 베이징 컨템포러리, 갤러리 캠프, 뮌헨, 독일
 흥분, 아우라 갤러리, 상하이
 산평!: 중국 아방가르드 조각, 빌덴안지 박물관, 헤이그, 네덜란드
 장벽: 중국 현대미술의 재구성, 밀레니엄 미술관, 베이징; 올브라이트 녹스 미술관, 뉴욕
 하루살이, 베이징 코뮌, 베이징
 징더전에서 PVC까지, 차이니즈 컨템포러리, 베이징
 제3회 티라나 비엔날레, 티라나
 중국, 현대 회화, 폰다치오네 팔라초 브리케라시오, 토리노, 이탈리아
 중국, 현대 미술의 전망, 오베르단 극장, 밀라노, 이탈리아
- 2004 나! 나! 나!, 코트야드 갤러리, 베이징
 신체 중국, 마르세유 현대 미술관, 마르세유, 프랑스
 금지된 감각? 중국 현대미술의 관능, 그르노블 박물관, 그르노블, 프랑스; 프랑수와 미테랑
 문화공간, 페리괴, 프랑스
 나의 행적을 되돌아 보다, 플라비아 물러 메데이로스의 작업공간, 런던
 한아트 TZ갤러리 20주년 기념전, 홍콩아트센터, 홍콩
 중국의 눈: 중국의 현대 사진, 게디스 컨템포러리, 뉴욕
 중국 페인팅의 새로운 시각, 마렐라 아르테 컨템포라니아, 밀라노, 이탈리아
 화가지(花家地), 아트시즌스갤러리, 베이징
 과거와 미래 사이: 중국의 새로운 사진과 비디오, 뉴욕 국제 사진센터,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
 뉴욕; 시애틀미술관, 시애틀, 미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런던; 세계문화의 집, 베를린;
 산타바바라 미술관, 산타바바라 아트 뮤지엄, 캘리포니아, 미국; 스마트 미술관, 시카고, 미국;
 듀크대학교 내서미술관, 더럼, 미국
 카메라/액션: 퍼포먼스와 사진, 현대사진 박물관, 시카고, 미국
 포저스, 코트야드 갤러리, 베이징

- 페이스 투 페이스, 아우라 갤러리, 상하이
 입구, 아우라 갤러리, 상하이
- 2003 차이나 아트 나우: 아웃 오브 더 레드, 마렐라 아르테 컨템포라니아, 밀라노, 이탈리아; 트레비
 플래쉬 미술관, 페루자, 이탈리아
 중국의 신체, 갤러리 앤 르트레, 파리
 중국의 여성들, 알베르 베나무 갤러리, 파리
 아를에서의 만남, 아를, 프랑스
 이상한 천국, 중국현대사진전, 루돌피눔 갤러리, 프라하
 프라하 비엔날레 1: 주변부가 중앙이 되다, 국립미술관 벨레트리즈니 팰리스, 프라하
 헐벗은 양성성, 팩토리 798, 베이징
- 2002 반항하는 신체들, 아트 모스크바 2002, 중앙화가의 집, 모스크바
 한·중 회화 2002 – 새로운 표정, 예술의 전당, 서울
 국제적 전시자, 커존극장, 런던
 중국의 근대성, 아르만도 알바레스 팬데아다 재단, 상파울루, 브라질
 파리-북경, 피에르가르댕 문화공간, 파리
 중국의 새로운 사진, 코트야드 갤러리, 베이징
 재해석: 중국실험미술의 십 년 1990-2000, 제1회 광저우 트리엔날레, 광둥미술관, 광저우, 중국
 번역된 몸짓들, 카릴리오 길 뮤지엄, 멕시코시티
 중국의 새로운 사진, 제2회 핑야오 국제 사진 페스티벌, 핑야오, 중국
 설상가상, DDM 웨어하우스, 상하이
- 2001 번역된 몸짓들, 세계문화의 집, 베를린; 퀸스 미술관, 뉴욕
 휘귀(火锅): 중국 현대미술, 예술가의 집, 오슬로
 소년 소녀, 업리버 로프트, 쿤밍, 중국
 제7회 이스탄불 비엔날레 : 예고-푸가, 톱카프 궁전, 이스탄불
 네이키드, 우드 스트리트 갤러리, 피츠버그, 미국
- 2000 남자다운, 아트 인 제너럴, 뉴욕
 제3회 광주비엔날레: 인(人)+간(間), 광주
 제3회 광주비엔날레: 보이지 않는 경계 – 변모하는 아시아의 미술, 광주; 우츠노미야 미술관,
 우츠노미야, 일본
 2000년도의 중국 현대미술전: 소생의 시간, 업리버 아트 갤러리, 청두, 중국
 인물: 모더니즘의 이면, 스너그 하버 문화 센터, 뉴욕
 우리의 중국 친구들, ACC 갤러리 바이마르, 바이마르, 독일; 갤러리에 누에델리, 바이마르, 독일
 유토피아, 로갈란드 미술관, 스타방에르, 노르웨이
 중국의 퍼포먼스, JGM 갤러리, 파리
- 1999 소년에게는 분홍/소녀에게는 파랑, NGBK베를린, 베를린
 제48회 베니스비엔날레: 아페르토 오버 올, 베니스, 이탈리아
- 1998 자율 행동, 아트스페이스, 오클랜드, 뉴질랜드
 타마 비방 '98, 타마 예술 대학, 도쿄
 인사이드 아웃: 뉴 차이니스 아트, P.S.1 현대 미술센터, 뉴욕; 샌프란시스코 현대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 뉴욕
- 1997 디젠더리즘, 세타가야 미술관, 도쿄

- 퍼포먼스 사진들, 잭 킬튼 갤러리, 뉴욕
중국의 사진과 비디오, 맥스 프로테치, 뉴욕
또 다른 대장정: 90년대 중국 개념미술과 설치미술, 펀다멘타 파운데이션, 브레다, 네덜란드
1996 차이나 아방가르드 재료전, 갤러리 Q & QS, 도쿄
1995 제 3자의 접촉, 베이징
이름 없는 산 1m 높이기, 베이징
아홉 개의 구멍들, 베이징
1992 제1회 1990년대 비엔날레 아트페어 - 유화 부문, 광저우, 중국
1989 상황의 연작들, 후베이미술학원, 우한, 중국

소장

- 테이트컬렉션, 런던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국립국제미술관, 오사카, 일본
플로리다대학교 사무엘 P. 한미술관, 게인즈빌, 미국
M+미술관, 홍콩
후베이미술관, 우한, 중국
호남성 박물관, 창사, 중국
메이룬미술관, 창사, 중국
탄귀빈당대미술관, 창사, 중국
예술 미술관, 클로스터노이부르크, 오스트리아
업리버 아트 갤러리, 청두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예술가의 집, 오슬로
청신동 국제 당대예술공간, 베이징
기 & 미리암 올렌스 재단, 벨기에
카사 디 리스파르미오 재단, 이탈리아
JGS 재단, 미국
타이강 생명보험, 중국